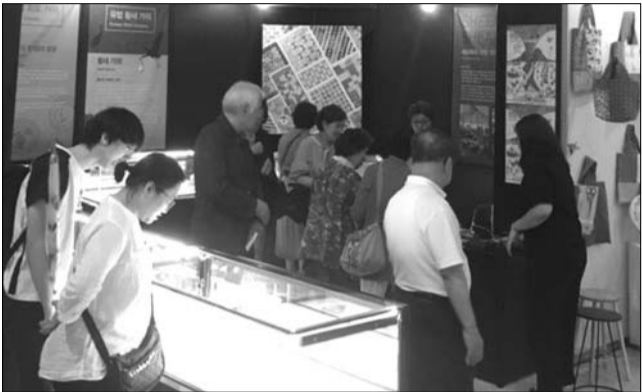


진안가위박물관을 알리다

세계 희귀 가위 전시 큰 호응

(사)한국퀼트연합(CQA) 주최 '2018년 한국퀼트페스티벌'에 진안가위박물관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일~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가위라는 독창적인 컨셉트를 전시한 진안가위



지난 10일~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년 한국퀼트페스티벌'에 진안가위박물관이 참여해 총 38점의 가위와 가위관련 퀼트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물관은 황새가위, 포도가위 등 총 38점의 가위와 가위관련 퀼트작품을 전시해 업계 관계자와 수도권 일반인 관람객 등 3,900여 명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진안가위박물관의 희귀 가위를 보기 위해 수도권 거주 진안 향우회 회원들이 방문했다.

백운면 출신 전영희 재경향우회부녀부장은 "세계 희귀 가위를 볼 수 있는 가위박물관이 고향에 있어 자랑스럽다."며 "고향에 내려가면 박물관을 찾아 더 많은 가위들을 관람하겠다."고 말했다.

가위박물관측은 오는 10월 18일~22일 '즐거라 진안! 마셔라 홍삼! 달려라 정춘!'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8 진안홍삼축제 홍보에도 주력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테마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람객들에게 다가가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폭염대응 냉방기 전수점검 실시

진안군은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전수 점검에 나섰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빈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월 한 달 간 200개소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폭염기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이다. 군은 지난해보다 39개 늘어난 22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앞서 쾌적한 무더위쉼터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어컨 전 문 정비업체가 직접 방문해 냉방기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필터 청소 및 교체 등 직접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대비 공사장, 영농활동 등 야외활동 시 폭염에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11일 러시아·벨라루스 등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우루치예'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쳤다.

태권도진흥재단 해외에서 태권도 알리기 나서

러시아 등서 시범공연 펼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러시아·벨라루스 등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동유럽내 태권도 입지 강화와 태권도 보급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단은 이에 앞선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 메가스포츠 체육관에서 열린 "FELL KOREA in MOSCOW" 한류문화제에도 참가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6천여명의 관객이 참가한 가운데 유명 K-POP 가수들의 공연과 태권도 시범공연이 펼쳐지는 등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태권도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바 있다.

재단은 러시아, 벨라루스에 이어 에스토니아를 방문(6.13)해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체육기관 주요 인사 및 태권도협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현지 대상을 태권도 시범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태권도원 시범단은 3천여 관객 앞에서 격파와 품새, 태권무 등 다양한 시범공연으로 태권도의 강인함 등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GV·산골토크' 일정 공개

무주서 21일부터 5일간 ... 영화 전문 게스트 참여

오는 6월 21일부터 5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관객과의 대화(GV)'와 '산골토크'의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총 28회의 관객과의 대화 및 산골토크를 위해 40여 명의 감독, 배우, 평론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전문 게스트들이 대거 무주를 방문해 영화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먼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 9편의 상영작 감독 전원이 자신의 작품을 들고 영화제 관객들과 만난다. 영화 <독전>에서 농아 동생역을 맡은 배우 이주영(<나와 봄날의 약속>), OCN 드라마 <구해줘>에 출연한 배우 전여빈(<죄 많은 소녀>) 등 국내 무주산골영화제 '관객과의 대화(GV)'와 '산골토크'의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또한 '편' 섹션 상영작 <엄마의 공책>의 주연 배우 이주실, <흙>의 김중우 감독, 허준석, 임태풍 배우는 물론 한일 합작 영화 <아, 황야>의 주연 배우 양익준도 관객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한다. <리틀 포레스트> 임순례 감독, <소나기>를 제작한 연필로 명상하기 팀은 등나무운동장 야외상영 전 무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연필로 명상하기'는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의 얼굴을 주석에서 그려주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허문영, 정한석, 김형석, 정지혜 등 영화 평론가들과 김용택 시인, 주성철 씨네21 편집장, 김조광수 영화제작사 대표, 서동진 계원예술대 융합예술학과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객들과 심도 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산골토크'도 마련된다. 무주산골영화제 산골토크는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더욱 깊게 이해하며 '영화보기'의 참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의 대표적인 심층 토크 프로그램이다.

무주산골영화제 관객과의 대화(GV)와 산골토크의 자세한 일정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성료

무주군은 지난 11일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무주장날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치과의사와 구강보건 전문 인력들이 함께 주민들을 만나 구강검진과 질환 상담(치주질환 및 부정교합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 치아우식증과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65세 이상 노인 및 금연 등 흡연자, 임산부 무료스케일링 사업 홍보)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소바니시 도포 시술과 올바른 의치사용방법 공유 시간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 폭염 대비 현장행정 강화

무주군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6개 읍면 각 마을을 방문해 작물별 관수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실내와 그늘막이 없는 논밭에서 일할 때의 주의사항과 요령 등도 꼼꼼히 일러 민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갈색날개 매미충 작기 방제를 위한 현장지도는 물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밭 급수에 필요한 양수기 대여에 관련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간간히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갑자기 더워지니 일하기가 그렇고 농작물도 관리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다"라며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나와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와 꼼꼼히 짚어주니까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농했던 것도 챙기게 되니까 한결 낫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관내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무더위에 취약한 주민들을 챙기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각 가정을 찾아 구상원들의 건강과 위생, 생활환경을 살피고 인근 무더위 쉼터와 이용 요령 등을 안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마을회관 석면철거 사업 추진

장수군은 주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석면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주로 지붕, 내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됐고 연면적 500㎡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되고 있다.

마을마다 위치하고 있는 500㎡ 이하의 마을회관은 주민의 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은 안전이 함양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8월까지 관내 약 200개 마을회관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올해 총 7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자재 철거와 함께 지붕재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월 중 업체선정과 함께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석면철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